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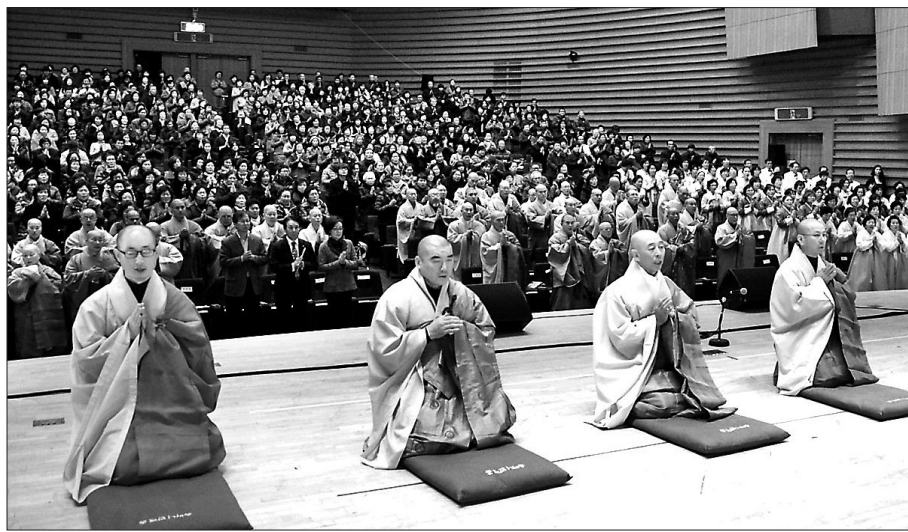
# “나눔으로 부처님 깨달음 의미 되새겨요”

### 호남지역 성도제일 법회 성료, 광주선 자선경매행사도 열려

불기 2559년 성도제일을 맞아 호남지역의 불자들이 참선과 절 수행, 경전 독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특히 나눔으로 성도제일을 회향하는 곳들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깨달음의 나눔’을 주제로 성도제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연화사 유지원 원생들의 무용을 시작으로 법요식과 승보회 장학금 전달, 칠정례, 법문으로 진행됐으며 식전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마련한 전통차 시음도 열렸다.

행사 회향 후에는 광주지역 스님들의 나눔경매 행사가 펼쳐져 큰 인기를 끌었다. 광주지역 스님들은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애장품을 내놓고, 애장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경매에 나온 물품은 발우, 반야심경 옥병, 일타 스님의 글씨가 새겨진 도자기, 수석, 다구, 관세음보살 족자 등 9점으로 신도들이 중심이 돼 구매했다. 최고낙찰자의 구매대금은 광주전남지역 불교공동모금회인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미래의 희망 청소년에게 전하는 붓다의 선물’ 기



1월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도제일 기념법회 장면. 법회 이후 영상으로 스님들의 애장품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수익금은 지역 불우이웃에게 전달된다.

### 광주지역 광주시청서 대규모 행사 한마음선원 전통차 시음회도 개최 사찰서는 철야정진으로 의미 되새겨

금으로 사용된다. ‘붓다의 선물’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와 학용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연광 스님,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보음 스님

등 스님들과 운장현 광주광역시, 박해자 국회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 대표와 불자 1000여명이 동참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원래 도는 우주에 가득차 있지만 중생들의 번뇌로 이를 보지 못한다”며 “기복과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비의 실천을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광 스님도 인사말에서 “나와 남, 이웃과 지역사회는 한 몸”이라며, “나눔은 곧

불교의 실천이며, 모든 불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연광 스님은 “이번 성도제일을 통해 나눔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찰에서도 성도제일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는 자비도량 참법, 108참회, 참선, 백대서원 절명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하고 동참한 불자들을 위해 회향식을 겸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응묵 스님은 수계사로 나서 “부처님 깨달음의 참 의미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라는 뜻”이라며 “각자 생활 중에도 자신과 함께 주변의 이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월 26일 저녁 예불 후 법회경 독송법회를 봉행했다. 철야정진에는 송광사 전 대종과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석초)도 성도제일을 맞아 철야정진했다. 특히 전북불교회관 철야정진에 참여한 30여명의 불자들은 참선, 자비도량 참법 등 프로그램에 따라 성도제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심으로 부처님 법 표현해요 광주에서 펼쳐질 불교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의 출연 배우들이 삭발의식을 진행했다. 2월 28일부터 3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출연진 5명(남 4명, 여 1명)은 지난 1월 25일 광주 중심사에서 연극관계자와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님역할을 연기하기 위한 삭발의식을 단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불교회관 월호 스님 초청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석초)는 1월 25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월호 스님은 이날 (대방광불화엄경)을 중심으로 10가지 행불10선에 대해 설명하며 불자들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했다.

월호 스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해 아는 만큼 잘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며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날 초청법회에는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법문을 경청했다. 전북불교회관은 매월 한번 전국 선지식을 초청해 법회를 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덕사 ‘붓다로살자’ 실천도량으로

1월 25일, 도법 스님 방문해 친필휘호 선사... 선포식 200명 참여



광주 선덕사가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으로 태어났다.

선덕사(주지 원묵)는 1월 25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 신도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서 도법 스님은 법문을 통해 “깊게 성찰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결사운동의 기본이다. ‘붓다로 살자’는 불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수

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은 주지 원묵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친필 휘호 전달, 축사, 법문, 선포식 청구 제창, ‘붓다로 살자’ 발원문 합송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은 청규를 제정하고, ‘붓다로 살기’ 위해 늘 깨어있기, 사부대중공동체, 마을공동체 가꾸기, 생명평화 세상을 이루기, 법회·기도·공부에 성실히 참여, 나눔을 실천 등 10가지 실천을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이젠 사찰 불교대학서 바리스타도 배출

1월 24일, 불교대학·대학원 총 86명, 바리스타 31명 배출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1월 24일 신흥사불교대학 원각사에서 불교대학·대학원 졸업법회를 열고 불교대학 12기 49명과 대학원 3기 37명을 배출했다. 또 불교대학 부설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을 거친 바리스타 31명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졸업했다.

특히 신흥사불교대학은 이상모, 정재수 졸업생에게 조계종포교원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20명의 졸업생에게 상을 수여하며 수행과 전법 등 불교발전에 앞설 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이와함께 신흥사불교대학장 우송 스님은 신흥사불교대학 총동문회장으로 7기 출신인 신동의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우송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라며 “간절한 발원으로 정진해 여여한 불법을 체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대학 안에서 만난 도반과의 인연과 만남을 잊지 말고 함께 헤매는 길로 향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덕사·충남교육청 내포문화MOU

충남도교육청은 1월 19일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과 수덕사와 함께 내포문화생태환경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내포문화권 역사와 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내포문화숲길을 체험할 수 있다.

‘내포문화숲길’은 숲길 걷기체험, 식물도감 만들기, 숲속 교실 과학탐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내포문화숲길은 수덕사와 흥성군과 서산시, 예산군, 당진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2015. 1. 19. (목) 10:00 장소 : 충남도교육청

따라 ‘월호깨달음의 길’ 내포 천주교 순례길 ‘백재부흥운동길’ 내포 역사인물길 등 4가지 테마로 전34.0km에 걸쳐 조성한 탐방로다.

노덕현 기자

## 법주사, ‘父에 간이식’ 장병 위해 모금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보은부대 김모 상병 부친이 1월 16일 서울대 병원에서 아들로부터 간을 이식받았으나 수술비 4000만 원 중 1500만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금운동을 전개해 비용을 전달했다.

이정근) 전장병과 보은군여성예비군, 예비군지휘관들도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

김상병은 “간 이식은 아들로써 당연히 해야 하며 지금은 아버지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랄뿐”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마음을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관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문화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

**구 단 구 궁 법**

상 표 등 록 번 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 비 스 표 등 록 번 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중헌

저자 (속명 정홍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역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새역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배,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로이다.)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귀신별야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 스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 단 구 궁 법 대 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기목**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기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기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기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기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 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888년 11월 09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기목을 찾아서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병명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기목, 효능병명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기목, 건강성 병명
- 2014년 10월 0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 10분 ‘내 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기목’ 병명

하. 마. 기. 목. 지.팡. 이.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공 역맥, 풍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강판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력,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므로)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정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기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대구 북 00698호